外國企業의 貿易行態分析

朴 乙 鏞

▷ 目 次 ◁

Ⅰ. 序 論
Ⅱ. 外國人企業의 直接投資理論
Ⅲ. 投資類型과 貿易行態의 聯關分析
Ⅳ. 要約 및 結論

Ⅰ. 序 論

本硏究의 主目的은 韓國의 製造業分野에 投資된 外國人投資企業의 投資類型과 貿易行態를 觀察, 分析하는 데 있다. 특히 그러한 投資類型의 主要決定要因으로서 貿易의 역할을 알아 보고자 한다.

그동안 韓國에 있어서 外國人投資企業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外國人投資企業의 海外活動이나 특히 開發途上國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外國에서 있어 왔던 많은 論議에도 불구하고 學問的으로 별로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왔다[1]. 생각컨대 그 主要理由는 海外로부터의 資本導入이 韓國의 經濟發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資本의 直接投資는 1978年末 현재 外資導入 總額 134億弗의 10%도 안되는 8.1億弗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起因한 것으로 보인다[2].

그 이외에도 後述하는 바와 같이 韓國에 있어서의 外國企業의 投資는 外國人投資企業의 典型的인 投資類型인 單獨投資로 된 子會社(wholly owned subsidiary)의 설립과는 달리 現地의 韓國人企業과 함께 投資하는 合作投資(joint venture)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外國企業으로서의 性格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또 대부분의 경우 投資의 規模가 영세하여 外國人投資企業이 個別企業으로서 韓國經濟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보이지 않았던 데도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韓國에 있어서의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관심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이유 때문에 차츰 커지고 있다.

筆者：韓國開發硏究院 首席硏究員

1) 그 예외로 다음과 같은 몇개의 연구를 들 수 있다. S.H. Jo (1976); Cohen (1973); 具本潮·朴振根(1973) 참조.

2) 이 統計는 到着基準이다. 經濟企劃院, 『經濟協力의 現況과 方向』, 1980, p.20 참조.

첫째, 外國人投資의 規模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1970年代 이들 外國人投資企業의 生産增加率은 國內總生産의 增加率보다 더 높아 全體生産額基準으로 볼 때 外國人投資企業이 갖는 比重은 1978年末 基準으로 17.8%에 달하였고 특히 石油化學, 肥料, 電子 등 몇개 産業에서는 이들의 比重이 더욱 높아서 外國人投資의 영향에 대한 分析이 중요하게 되었다[3].

둘째, 韓國經濟의 成長과 그에 따른 國內市場規模의 팽창에 따라 韓國이 外國人投資企業의 投資對象으로서 以前보다 더욱 매력적으로 변하여 가고 있으며 또 韓國政府에서 投資條件을 以前보다 완화함으로써 앞으로는 外國人의 直接投資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4].

일반적으로 韓國에 있어서 外國人投資企業의 投資目的에 따른 類型의 分類를 보면 첫째 國內市場의 占有를 위한 投資가 있고 둘째, 韓國의 比較優位要因(勞動力)을 이용하여 勞動集約的인 商品 또는 일부의 部品을 이곳에서 生産하여 輸出하려는 輸出指向型 投資로 大別된다. 따라서 外國人投資企業의 賣出先이 國內인지 海外인지에 따라서 投資動機 및 그 行態가 다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本論文의 主目的은 外國人投資企業의 輸出行態를 그 投資目的과 관련하여 어떤 要因들과 相關關係를 갖고 있는가를 分析하는 데 있다.

本研究의 對象은 韓國에 있어서의 外國人投資企業中 製造業部門에 投資한 企業들로서, 이용한 主資料는 1979年 經濟企劃院 및 商工部의 主管으로 蒐集된 2個의 「서베이」資料이다.

그 이외에 政府에서 파악하고 있는 全數資料(1978年末 基準 785個企業)를 이용하였다. 本研究에서 資料로 이용한 397個 製造業關聯企業數는 全對象業體 785個의 50.6%이지만, 全體對象企業中 投資規模 30萬弗 以上 企業의 85.4%를 망라하고 30萬弗 以下 對象企業의 34.7%를 망라하고 있어 全體投資金額 規模로 볼 때 그 포괄된 범위는 거의 70%에 이르고 있다.

이 資料의 한가지 問題點은 이것이 韓國에 있는 子會社를 對象으로 하여 蒐集되었기 때문에 母企業에 대한 상세한 分析資料가 결여되고 있는 점이다.

本論文의 主要內容으로는 序論에 이어 第2節에서는 外國人直接投資企業의 投資行態에 대한 理論的 考察을 하고 이를 통하여 輸出指向型 投資와 國內市場指向型 投資行態의 차이를 파악하고 本論文에서 分析할 假說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3節에서는 外國人投資企業의 貿易行態를 중심으로 投資類型에 대한 檢證과 産業別 分析이 제시되고 끝으로 第4節에서는 要約과 結論으로서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政策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Ⅱ. 外國人企業의 直接投資 理論

外國人投資企業의 歷史는 오래이지만 성황

3) 1978年 기준으로 石油化學部門은 外國人投資企業의 비중이 同部門의 總生産의 40.3%이고 組立金屬, 機械, 裝備는 21.3%이다(그중 電氣電子部門은 36%). 韓國産業銀行報告書(1979), p.57 참조.

4) 서울經濟新聞, 1980年 2月 11日, 經濟企劃院 發表記事 참조.

을 이룬 것은 第2次大戰 以後 美國 大企業의 海外進出로서 본격화되어 이에 대한 硏究도 1960年代初 以來로 美國學界를 중심으로 盛行하고 있으며 특히 1970年代에 이르러 美國 以外 日本, 西歐先進國의 大企業이 母企業이 된 外國人投資企業들에 대한 硏究와 投資地域이 開發途上國인 企業의 활동에 관한 硏究들이 활발하였다[5].

企業의 海外直接投資는 먼저 外國貿易과 資本移動이라는 관점에서 전통적인 國際經濟學의 理論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1960年初의 Hymer(1976)의 論文 이래로 Vernon(1971), Caves(1971, 1974a,b), Horst(1972 a,b) 등의 硏究로 海外直接投資는 일반적인 資本移動과는 달리 産業組織的인 次元, 특히 불완전한 市場構造의 問題로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효과있다는 사실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의 관심은 주로 이 後者의 接近方法에서 論議되는 問題에 있는 만큼 여기서는 이들의 硏究를 토대로 直接投資의 決定要因에 대한 理論을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外國企業의 直接投資를 現地人의 國內投資와 비교해 볼 때 前者는 現地事情에 덜 익숙하고 따라서 필요한 情報의 蒐集이나 접촉에 여러 費用이 더 들게 되고 現地政府의 차별까지 받을 수 있어 다른 條件이 동일하다면 前者가 後者보다 競爭上 불리한 立場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直接投資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直接投資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投資를 하는 個別企業의 次元에서나 또 産業的인 次元에서 外國의 投資企業이 가진 특별한 優位要素(advantageous assets)가 前述한 競爭上의 불리를 상쇄하고 남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優位要素가 무엇이며 그러한 企業들이 왜 直接投資를 원하는가? Hymer, Vernon, Caves 등의 硏究에 의하면 이들 企業의 공통적인 특성은 規模가 크고, 즉, 獨寡占的인 性格이 있고 利潤이 높으며 差別化된 商品(differentiated products)을 주로 生産함으로써 硏究開發(research and development)費와 廣告費가 다른 企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들 企業이 가진 優位要素는 技術上의 經驗이나 知識, 生産 및 「마케팅」에 관련된 組織, 知識, 情報와 여러 經營上의 優位, 그리고 寡占的인 大企業들이 갖는 優位要素를 들 수 있다. 즉,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規模의 經濟」[6]의 要因과 危險負擔의 分散能力, 資本, 技術, 資源 등의 生産要素를 상대적으로 效率性있고, 싸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能力, 技術이나 資源의 獨寡占이 가능한 경우 얻을 수 있는 優位性 등을 들 수 있다.

그밖에 生産製品이 差別化된 商品(differentiated products)인 경우 얻는 優位性을 들 수 있겠다.

이들 要因은 寡占化를 이룬 先進國 産業에 있어서 자유로운 市場參與의 進入障壁(entry barriers)을 이루는 要因과 밀접한 관계가 있

5) 海外直接投資의 諸問題에 관한 좋은 「서베이」論文으로서는 Caves (1971), pp.1~27; Hufbauer(1975), pp.253~320 참조.

6) 規模의 經濟가 生産工程의 일부에만 한정될 경우에도 大企業의 경우에는 그 工程만을 分割하여 (예로 部品生産과 組立의 分割) 投資함으로써 規模의 經濟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Caves(1971), pp.12~13 참조, 또 海外直接投資가 多工場(multiplant)의 規模의 經濟를 활용하는 증거로서는 Caves(1974a), pp.280~288, 291~292의 캐나다 投資 例 참조.

다고 보여진다. 海外에의 水平的 投資인 경우에는 國內市場에의 進入障壁(entry barriers)의 혜택을 받고 있는 寡占企業들에 의한 投資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7]. 즉 先進國의 寡占的인 國內市場構造面에서 進入障壁이 비교적 높은 化學, 製藥, 自動車, 耐久性 消費材産業 등의 海外投資는 많고 그러한 특성을 갖지 않은 基礎金屬, 木材, 皮革類産業 등의 海外投資는 많지 않다는 관찰에서도 이 점을 유추할 수 있겠다.

海外直接投資의 形態는 크게 나누어 母企業이 本國에서 生産하고 있는 것과 같은 商品을 現地子會社에서 生産하는 形態의 投資, 즉 水平的인 投資(horizontal foreign investment)와 母企業의 生産過程의 垂直的인 結合(vertical integration)의 要素로서 原料나 中間投入材 部分品의 生産이나 다른 地域에서 輸入된 部分品의 組立을 위한 垂直的인 投資(vertical foreign investment)로 나눌 수 있다.

前者의 경우 現地國內市場의 크기가 投資의 주요한 決定要因이 되고 後者의 경우에는 原材料의 존재라거나, 部分品 등의 生産에 있어서 필요한 要素, 예컨대 勞動集約的인 生産에 있어서는 低賃勞動力의 존재나 에너지集約的 産業에 있어서 싼 에너지의 존재 등이 主要決定要因이 될 것이다.

Reuber의 최근 硏究에 의하면[8]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水平的인 直接投資와 垂直的인 直接投資間에는 그 動機나 子會社의 行態面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水平的인 投資는 일반적으로 現地國家의 中長期展望에 근거를 둔 비교적 規模가 큰 投資이고 輸入代替的 投資가 보통이며 따라서 輸出比率도 낮고 利益率이 낮아 技術이나 또는 다른 部門과의 연관효과의 面에서 비교적 國內經濟와 연결이 깊다. 이들의 投資動機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가진 優位要素를 이용하여 利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좀더 직접적인 動機로는 本國이나 現地競爭企業과의 관계, 특히 그들이 가지고 있던 市場占有率을 지키고 增加시키기 위한 競爭上의 防衛的인 投資(defensive investment)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競爭企業과의 關係뿐 아니고 現地政府의 政策이 또한 主要決定要因이 되고 있다. 즉, 現地政府의 貿易, 關稅政策, 産業政策, 投資誘引 및 規制政策은 外國企業이 外國에서 生産하여 現地에 輸出할 것인가, 現地生産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主要要因이 된다. 그러므로 다른 條件이 같다면 國內市場指向型 水平投資는 政府가 外國投資를 유치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輸出指向型 垂直的 投資에 비하여 現地政府(host government)의 交涉主導權(bargaining power)이 강한 것이 보통이다.

그에 반하여 輸出指向型 垂直的 投資에 있어서는 前述한 대로 現地에 필요한 資源 및 原資材가 있거나, 값싸고 풍부한 勞動力 혹은 값싼 에너지 등의 존재가 중요하며 輸出比率이 높고, 利益率이 높은 것이 보통이다. 또 勞動力과 에너지를 목표로 하는 경우는 原資材나 部品의 輸入比重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國內企業과의 前後方連結(forward and backward linkage)효과도 水平的인 投資보다 적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9]. 現地政府와의 交涉(bargaining)에 있어서도 비교적 큰 주도

7) Hymer(1976); Caves(1971, 1974b) 참조.
8) Reuber(1973), pp.71~80 참조.
9) Reuber(1973), pp 149~167 참조.

권을 갖는 바 이들이 水平的인 投資에 비하여 國內市場에 대한 依存度가 각고 또 外國市場에의 製品輸出이나 原資材의 輸入을 主導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投資形態 가운데 하나의 典型的인 投資는 輸出自由地域에 대한 投資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연관하여 企業의 海外投資를 설명하는 假說로서 製品週期理論(product cycle theory)을 들 수 있다. Posner(1961), Vernon(1966), Hirsch(1966) 등에 의해서 發展된 이 理論은 製品이 한 나라에서 商品으로 탄생하여 外國에 輸出되고 現地生產을 위한 投資가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이 理論은 國內의 需要가 增加하면서 生產이 늘고 또 生產技術이 成熟되고 一般化되어 技術의 移轉이 容易하게 되고 또 大量生產이 되면서 生產費가 節減되고 더욱 需要가 增加되는 과정 속에서 外國에의 輸出이 커지고 輸出이 어느 線에 도달하면 現地生產을 시도하게 된다. 技術의 電波가 容易해진 이 段階에서는 生產費의 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勞動費用의 역할이 커지게 되므로 勞動費用이 비교적 작은 地域에서 높은 地域으로 逆輸出도 할 수 있게 된다.

製品週期理論은 이 論文에서 우리가 관심있는 輸出指向型 垂直的 投資와 國內市場指向型 水平投資의 구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兩者에 모두 관련되어 있지만 특히 一部產業에 있어서 水平投資가 일어나는 動態的인 要因의 설명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 論文에서는 이 節에서 이미 제시한 國內市場指向型 水平的 投資와 輸出指向型 投資에 대한 理論的인 假說을 韓國의 資料로써 檢證하려고 한다. 즉, 外國投資企業의 全賣出額中에 輸出이 차지하는 比重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 論議된 대로 說明變數로서 原資材의 輸入比重, 資本 및 勞動의 상대적 比, 勞動集約程度, 合作企業인 경우에 外國人投資의 比率, 認可時의 輸出條件, 技術導入與否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第3節에서는 이러한 說明變數들이 輸出比重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根幹으로 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產業別 投資類型을 分析하기로 하자.

Ⅲ. 投資類型과 貿易行態의 聯關分析

投資類型을 分析하기 전에 먼저 韓國의 製造業에 있어서 外國의 直接投資의 投資類型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자[10].

첫번째 특색은, 거의 모든 投資가 合作企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單獨投資(wholly owned subsidiary)는 전체의 26.2%인 201件밖에 안되고 그외 대부분이 現地 韓國人과 함께 投資하는 合作投資形態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外國의 投資가 單獨投資이고 母企業의 子會社에 대한 政策이 單獨投資일 경우와 合作投資일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매우 흥미있는 양상이라고 생각된다.

두번째 特色은, 主要投資國이 日本과 美國으로 集中되어 있다는 점이다. 投資件數로 볼 때 전체의 80.4%가 日本으로부터의 投資이고 그 다음은 美國이 12.9%로서 美·日 兩國이

10) 이것은 外國投資企業 全數調査「서베이」에 의한 것이다.

전체의 93.3%를 차지하고 있다. 投資金額으로 보면 日本과 美國의 比重이 각각 전체의 58.9%와 27.8%를 차지하고 있다(表 1 참조).

세번째 특색은, 外國의 投資가 몇개 部門에 集中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단순한 技術에 勞動集約的인 纖維, 衣類部門과 이에 유사한 電氣·電子分野와 資本集約的인 化學, 精油, 機械 등의 部門에 많이 集中되어 있다. 件數를 보면 纖維·衣類部門이 15.9%(122件), 化學石油部門이 13.7%(105件), 電氣·電子部門이 24.5%(188件)에 이르고 있다(表 1 참조).

네번째 특색은, 일반적으로 投資規模가 영세하다는 점이다. 全體投資件數 가운데 68.1%가 30萬弗以下 規模인데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纖維, 衣類, 其他製造業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하여 100萬弗 以上은 14.5%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投資規模의 영세성은 產業別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部門에 있어서 全投資의 50% 以上이 30萬弗 以下의 것이다.

끝으로 時期上으로 보면, 1969年까지 總投資額 약 4,800萬弗(47件)밖에 되지 않던 投資가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日本으로부터의 纖維, 電子 등에 대한 投資가 급격히 增加하기 시작하였다. 1972~75年 사이에 勞動集約的인 產業에 대한 投資는 더욱 활발하였으나 1975年 以後에는 韓國의 實質勞動賃金의 높은 上昇으로 纖維·衣類分野를 위시하여 投資가 전반적으로 저조하였다(表 2 참조).

前節에서 살펴 본 대로 外國企業의 海外投資動機는 대개 現地의 國內市場을 목표로 한 水平的인 投資(horizontal investment)이거나

〈表 1〉 產業別 國別 投資件數 및 金額

(단위 : 件, 百萬弗)

	日本		美國		其他		計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飮食料品	33	8.5	11	5.1	4	1.6	48	15.2
纖維·衣服	106	103.7	8	3.8	8	9.1	122	116.6
纖維	41	89.7	3	2.7	4	7.1	48	99.5
衣服·皮革	65	14.0	5	1.1	4	2.0	74	17.1
木製品	5	0.3	—	—	—	—	5	0.3
紙製品	8	1.4	2	1.7	1	0.5	11	3.6
化學石油	68	127.4	22	130.1	15	49.9	105	307.4
石油精製	—	—	4	59.3	2	18.0	6	77.3
非金屬鑛物	26	11.3	2	3.6	1	0.5	29	15.4
第1次金屬	31	29.2	1	0.9	2	6.6	34	36.7
機械및裝備	295	163.4	47	69.3	22	34.0	364	266.7
組立金屬	31	21.8	10	6.8	3	3.0	44	31.6
機械	64	26.9	6	8.1	2	5.1	72	40.1
電氣·電子	157	88.8	23	26.8	8	21.9	188	137.5
運輸裝備	13	17.3	3	25.9	1	0.7	17	43.9
科學測定및制御	30	8.6	5	1.7	8	3.3	43	13.6
其他	45	10.3	4	0.6	—	—	49	10.9
合計	617	455.5	97	215.1	53	102.2	767	772.8

註 : 金額은 인가당시 금액이 아니고 1978年 現存殘額基準임.
資料 : 經濟企劃院, 『外國人投資企業現況』, 1979.

母企業의 生産體制나 혹은 販賣體制에 연관되어 그 生産工程의 일부나 原料의 조달을 목적으로 投資되는 垂直的 投資(vertical investment) 兩者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그러므로 前述한 바와 같이 全體販賣額中에서 輸出이 차지하는 比重으로서 중요한 投資動機의 하나를 알 수 있다. 垂直的 投資의 경우는 水平的 投資의 경우보다 全體販賣額中의 輸出比重이 훨씬 높을 것이 기대된다.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産業別로 보면 1978年 기준으로 繊維類·衣類, 電氣·電子機器, 其他製造業에 投資된 外國企業의 輸出比重이 60% 以上으로 가장 높고 化學, 石油, 1次金屬, 非金屬鑛物製品産業 등이 비교적 낮은 産業임을 알 수 있다. 前者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이 韓國이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는 勞動集約的인 産業 또는 勞動集約的 工程에 投資된 경우이다. 後者의 경우라 할지라도 輸出比重이 10%가 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海外販賣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産業全般에 걸쳐 全體販賣에서 輸出의 比重이 큰 것은 순전히 經濟的인 이유뿐만 아니고 韓國政府의 外國人投資政策에 基因하고 있다. 즉, 1979年에 政府의 外國人投資政策이 바뀔 때까지 전체 外國人投資企業體의 약 70% 以上이 어떤 輸出條件이 붙여서 投資가 認可된 것이며 그중에서도 약 1/2은 全量輸出을 條件으로 한 政府認可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輸出比重이 높은 것은 이러한 政府政策에도 연유함을 알 수 있다.

投資動機에 관한 우리의 「서베이」調査結果는 輸出指向型 投資와 國內市場指向型投資의

〈表 2〉 産業別 認可年度別 投資件數 및 金額

(단위 : 件, 百萬弗)

	1962~1971		1972~1975		1976~1978		計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飮食料品	13	8.5	21	5.1	14	1.6	48	15.2
繊維·衣服	34	103.7	81	3.8	7	9.1	122	116.6
繊維	18	89.7	30	2.7	—	7.1	48	99.5
衣服·皮革	16	14.0	51	1.1	7	2.0	74	17.1
木製品	0	0.3	5	—	0	—	5	0.3
紙製品	4	1.4	5	1.7	2	0.5	11	3.6
化學石油	36	127.4	58	130.1	11	49.9	105	307.4
石油精製	4	—	2	59.3	—	18.0	6	77.3
非金屬鑛物	10	11.3	16	3.6	3	0.5	29	15.4
第1次金屬	8	29.2	20	0.9	6	6.6	34	36.7
機械및裝備	69	163.4	224	69.3	71	34.0	364	266.7
組立金屬	6	21.8	24	6.8	14	3.0	44	31.6
機械	20	26.9	31	8.1	21	5.1	72	40.1
電氣·電子	37	88.8	127	26.8	24	21.9	188	137.5
運輸裝備	1	17.3	13	25.9	3	0.7	17	43.9
科學測定및制御	5	8.6	29	1.7	9	3.3	43	13.6
其他	14	10.3	30	0.6	5	—	49	10.9
合計	188	455.5	460	215.1	119	102.2	767	772.8

註 : 1978年 現存殘額基準임.

資料 : 經濟企劃院, 『外國人投資企業現況』, 1979.

〈表 3〉 投資企業의 製品輸出比重

	輸出比重(%)	
	1975	1978
飮食料品	21.3	43.7
纖維·衣服	78.2	79.1
纖維	72.6	72.2
衣服·皮革	99.3	99.5
化學石油	14.3	14.8
石油精製	8.6	4.0
非金屬鑛物	33.7	19.8
第1次金屬	27.5	18.6
機械및裝備	53.3	48.0
組立金屬	40.9	57.6
機械	41.5	25.8
電氣·電子	68.7	65.4
運輸裝備	3.2	10.6
科學測定및制御	60.2	55.2
其他	90.0	78.2

資料：1979年「서베이」資料에서 著者 計算.

區分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表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投資한 企業의 投資動機中 가장 중요한 것은 低廉, 良質의 勞動力을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重要度 33%, 表 4 참조) 두번째가 새로운 市場의 開拓 또는 확보를 위해서이며(23%) 세번째가 投資收益率이 높은 것(18%)이 이유이다.

各産業別로 보면 이러한 投資動機는 더욱 뚜렷해진다. 예로써 纖維·衣類, 電子機器, 科學測定機器, 其他製品 등 勞動集約的 産業이거나 勞動集約的 製造工程을 포함한 경우에는 低廉, 良質의 勞動力의 존재가 다른 어떤 動機보다 월등하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서 國內市場指向型 投資인 石油, 1次金屬, 運輸裝備 등의 경우에는 國內市場의

〈表 4〉 産業別 投資動機

(단위：%)

	高投資收益	國內市場確保	低廉·良質勞動力	工業立地	稅制上特典	勞使問題·社會安定	合計
飮食料品	22	16	38	11	9	4	100
纖維·衣服	21	16	41	9	11	1	100
纖維	24	14	37	13	10	3	100
衣服·皮革	19	18	43	6	12	1	100
木製品	17	50	33	—	—	—	100
紙製品	13	33	25	—	13	17	100
化學石油	20	29	27	10	13	1	100
石油精製	55	14	14	—	18	—	100
非金屬鑛物	23	11	35	20	10	2	100
第1次金屬	16	33	22	14	14	2	100
機械및裝備	16	24	33	10	13	3	100
組立金屬	16	24	29	17	12	2	100
機械	13	32	31	9	11	3	100
電氣·電子	18	21	35	9	15	2	100
運輸裝備	20	39	22	15	5	—	100
科學測定및制御	16	16	35	10	15	6	100
其他	16	14	38	17	16	—	100
計	18	23	33	11	13	2	100

註：이 퍼센트는 上記 6個項目의 投資動機를 順位대로 기록한 것을 加重値를 주고 合算하여 다시 이를 퍼센트化 한 것이다.

資料：1979年「서베이」資料.

開拓 또는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投資收益率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관찰을 통해서 이때까지 韓國製造業에의 外國人投資는 주로 韓國의 低賃, 熟練勞動力을 이용하여 勞動集約的인 工程費用을 낮추려는 動機에서 된 것이 주된 要因이고 또 반면에 國內市場의 석권을 목표로 한 輸入代替的인 投資(精油, 化學部門)도 있어 이 두가지로 兩分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分析의 첫째 대상은 外國企業의 投資動機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그들의 輸出行態 즉, 全體 賣出에 있어서 輸出이 차지하는 比重을 설명하는 것이고 둘째는 첫째 分析의 결과가 各個產業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려 한다. 그러면 먼저 各企業 輸出比重의 決定要因, 또는 밀접히 연관될 수 있는 說明變數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보기로 하자. 우선 輸出을 목적으로 한 外國人投資는 韓國이 가진 比較優位의 基本要素인 效率的이고 低廉한 勞動力의 이용이 가장 큰 목적인 까닭에 產業의 勞動集約度에 관련된 變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各產業의 勞動集約度와 資本集約度를 사용했으며 先進國과의 技術隔差를 보기 위하여 技術導入契約 與否도 檢討되었다.

公式的인 技術導入契約은 技術隔差가 클 경우(즉, 韓國에 比較優位가 없을 경우)에 주로 集中되어 있고 隔差가 작은 경우에는 契約없이 外國母企業에서 導入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다른 主要說明變數로는 原資材輸入比重을 들 수 있다. 輸出比重이 높을수록 原資材輸入比重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製品의 生產에 필요한 原資材나 部品은 外國產의 사용이 輸出競爭에 유리한 한 많이 輸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특히 韓國의 輸出促進政策의 하나로 輸出用 原資材의 導入을 輸入障壁없이 원활하게 해 주고 있는 데도 그 이유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表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石油나 1次金屬의 경우처럼 原資材가 韓國에서 產出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輸出比重이 높을수록 輸入比重도 높다는 점으로써 짐작할 수 있다.

그 이외의 說明變數로서는 合作企業의 경우 外國人投資의 比率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外國人投資比率은 첫째 全生產額에서 輸出의 比重이 높을수록 國內合作企業의 역할이 덜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投資形態가 合作投資보다는 單獨投資에 가까운 形態를 선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投資額의 大小關係는 日本으로부터의 投資가 中小企業의 小規模投資가 많아 그점들이 輸出比重과 어떤 體系的인 연

〈表 5〉 投資企業의 原資材輸入比重

	輸入比重(%)	
	1975	1978
飮食料品	20.2	26.9
纖維·衣服	73.6	63.3
纖維	71.8	63.5
衣服·皮革	78.6	63.1
化學石油	91.8	89.7
石油精製	97.0	98.0
非金屬鑛物	37.8	32.6
第1次金屬	73.5	71.6
機械및裝備	75.6	55.5
組立金屬	57.0	59.8
機械	59.1	47.4
電氣·電子	81.5	66.0
運輸裝備	52.7	37.8
科學測定및制御	74.5	63.5
其他	70.4	53.5

資料 : 1979年「서베이」資料에서 計算.

관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11].

끝으로 小島淸의 假說인 美國企業과 日本企業과의 차이 즉, 日本企業은 現地의 比較優位를 이용한 交易增進型 投資이고 美國의 海外投資는 貿易을 代替하는 交易抑制型 投資라는 주장이[12] 韓國의 경우에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더미(Dummy)變數로서 母企業의 출신국가의 區分이 輸出比重의 결정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보려 한다.

外國企業의 輸出比重을 설명할 獨立變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KI : 資本集約度(資本／附加價値)[13]

LI : 勞動集約度(總雇傭／附加價値)[13]

IM : 原資材의 輸入比重(輸入原資材／總所要原資材)

OG : 外國人投資比率(外國人投資額／全體資本金)

EC : 輸出條件與否(Dummy 變數)

TI : 技術導入契約與否(Dummy 變數)

CC : 母企業의 本國(Dummy 變數)

檢證方法으로는 多重回歸分析(multiple regression)에 의존했다. 먼저 全體標本(sample)으로서 回歸分析(regression)을 행하였고 또 投資金額의 多寡(30萬弗 및 100萬弗 以上, 및 以下), 合作企業의 主導權의 有無(投資比 50% 以上 및 以下), 資産의 多寡(10억 以上,

〈表 6〉 輸出比重分析結果

標本區分 ＼ 獨立變數	*C* (常數)	*LI*	*IM*	*OG*	*EC*	*TI*	*KI*	R^2	*F*
全體標本	−0.06	0.65 **(40.7)	0.25 **(32.5)	0.21 **(10.0)	0.25 **(22.6)	−0.20 **(26.8)	−0.0002 (0.02)	0.4150	43.7**
投資額									
30萬弗未滿	−0.08	0.52 **(12.2)	0.23 **(13.7)	0.23 *(4.0)	0.36 **(20.4)	−0.18 **(7.4)	−0.007 (1.61)	0.4116	20.2**
30萬弗以上	0.03	0.72 **(23.0)	0.28 **(17.5)	0.22 *(5.2)	0.16 *(5.2)	−0.22 **(17.5)	N.S.	0.4295	23.8**
外國人投資比									
50%以上	−0.24	0.92 **(33.3)	0.32 **(31.7)		0.35 **(26.4)		−0.03 (0.71)	0.4697	30.4**
50%未滿	−0.29	0.64 **(14.4)	0.16 *(5.1)		0.19 *(5.1)		0.15 **(12.0)	0.2816	10.8**
資産									
10億以上	−0.005	0.72 **(20.7)	0.30 **(18.1)	0.15 (2.1)	0.17 **(6.8)	−0.22 **(18.0)	N.S.	0.3955	19.0**
10億未滿	−0.1	0.47 **(10.8)	0.22 **(14.4)	0.29 **(10.2)	0.41 **(20.1)	−0.17 **(6.8)	−0.03 *(5.4)	0.4001	21.0**

註 : 外國人投資比의 구분에서는 *TI*(기술도입)와 *EC*(수출조건)의 相關係數가 너무 높아(r^2=0.65), *TI*를 제외함. **는 有意水準 1%以上, *는 5%以上, 기타는 有意치 않음. N.S.는 係數가 有意치 않고, coefficient는 거의 0에 近似한 경우.

11) Tsurumi에 의하면 日本의 海外投資는 주로 大企業이나 小企業이 많고 中間 크기의 企業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Tsurumi(1976), pp.78～88 참조.

12) 小島淸 (1977), pp.114～143 참조.

13) 資本集約度와 勞動集約度를 2個의 變數로 사용하는 대신에 資本과 勞動의 상대적인 比率로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으나 우리의 주된 관심은 從屬變數의 설명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는 韓國의 比較優位要因으로서의 勞動集約度이기 때문에 前者대로 2個의 變數로 分離使用하는 方法을 택하였으며 그렇게 한 두번째 이유로는 단적할 만한 資本資料를 얻지 못한 데도 연유한다. 本調査에 사용된 資本, 雇傭, 附加價値 등의 資料는 本院 李承潤 博士 협조에 의한 것임.

以下) 등으로 區分하여 그 區分된 標本間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檢證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表 6〉과 같다.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輸出比重을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獨立變數들로는, 첫째, 勞動集約度의 代理變數(proxy variable)로 삼은 單位附加價値當의 雇傭比重이다. 즉, 說明變數로서의 勞動集約度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說明力을 가지고 있었으며 輸出比重의 決定要因으로서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두번째는 原資材의 輸入比重이다. 즉, 높은 輸出比重은 높은 原資材의 輸入比重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

세째는 外國人의 投資比率이다. 즉, 外國人의 資本參與比率이 높을수록 輸出比重이 높았다. 그 이외에 Dummy變數는 추가한 投資認可時의 輸出條件與否, 技術導入契約與否 등은 예상한 대로 前者는 正, 後者는 反比例의 相關關係를 보여주었다. 이들 다섯 變數들은 統計的으로 5% 또는 1%의 有意水準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고 전체로서도 從屬變數의 42%를 설명할 수 있었다(表 6 全體標本 경우 참조).

여기서 한가지 附記할 것은 勞動集約度以外에 우리가 2次的으로 사용해 본 資本集約度의 變數는 부호는 기대한 대로이나 有意水準이 아주 낮고 係數가 0에 가까왔는바 우리가 사용한 資本資料의 불충분에도 問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14]. 또 投資國에 따른 輸出比重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Dummy 變數를 실험하였는바 이것도 別差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우리는 輸出比重의 從屬變數가 각각 다른 標本 속에서 그 說明變數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기 위하여 몇가지 基準을 가지고 全體標本을 구분하여 다시 檢證을 시도하였다(表 6 참조).

즉, 投資額을 30萬弗 基準으로 나누고, 또 投資比率(50% 基準), 資產(10億基準)을 基準으로 구분하여 檢證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한 구분에 의한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外國人投資比의 區分(50%以上과 以下)인 경우 資本集約度의 부호가 기대한 것과는 반대로 나와 있는바 이것은 前述한 대로 資料上의 문제에 基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는 全般的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說明變數들은 위에서 제시한 假說을 대부분 확인하였다. 즉, 外國投資企業의 輸出比重은 勞動集約的일수록 그리고 技術의 隔差가 별로 크지 않을수록 높으며 輸出比重이 높은 경우 原資材를 많이 輸入함으로써 國內產業과의 聯關關係가 낮고 또 外國의 資本投資比率도 높아 經營의 主導權이 外國企業에 주어졌다. 그에 비하여 賣出額中에서 國內販賣比重은 逆으로 勞動集約度가 낮고 先進國과 技術隔差가 크며 國內調達比重이 크고 外國人의 資本參與가 낮은 방향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表 7 참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外國人直接投資政策을 고려하는 데 몇가지 중요한 示唆를 해주고 있다.

즉, 輸出比重이 높은 것은 國際競爭力 있는 製品을 만들고, 또 國際收支를 개선하는 데

14) 資本 대신에 사용해 본 固定資產의 경우에도 결과는 비슷하였다.

15) 母企業의 本國(CC)變數는 有意하지 않기 때문에 最終分析에서는 CC를 獨立變數에서 제외하였다.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나 國內經濟와의 유대가 잘 發展되지 않고, 原資材輸入比率, 外國人投資家들의 상대적인 交涉主導力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상의 回歸分析에서 얻은 결과가 實際產業別 投資形態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輸出比重이 높은 產業群과 낮은 產業群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1. 輸出比重이 높은 產業

纖維·衣類, 電氣·電子機器 및 其他製造業이 여기에 속한다. 機械 및 裝備의 일부인 組立金屬, 科學 및 測定機器의 경우에는 纖維類나 電子機器의 경우처럼 輸出比重이 높지 않으나 그 比重이 모두 全賣出額의 50% 以上을 차지하고 있어 여기에 포함시켰다(表 3 참조).

이 세 產業은 賣出額基準으로 볼 때 外國人投資產業 全體의 약 30%(1978年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精油를 제외하면 거의 50%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면 이제 產業特性이 비슷한 纖維類·衣類產業과 玩具, 運動具, 音樂器具 등으로 구성된 其他製造業과 電子·電氣機器 및 科學·測定機器, 組立金屬을 따로 분리하여 投資類型을 살펴보자.

가. 纖維·衣類產業 및 其他製造業

纖維類의 輸出比重을 보면 전체의 70%以上이 輸出이고 그중 衣類만 보면 거의 100%가 輸出된다.

纖維紡織業과 衣類, 皮革, 신발製品製造業은 여러가지로 비슷하면서도 投資規模나 投資目的, 輸出入行態面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보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平均投資規模를 보면 維纖類가 210萬弗로 衣類 및 皮革製品의 30萬弗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原材料의 輸入比重도 상당히 높아서

〈表 7〉 國內販賣比重의 分析結果

獨立變數 / 標本區分	*C*	*LI*	*IM*	*OG*	*EC*	*TI*	*KI*	R^2	*F*
全體標本	1.10	−0.58 **(32.5)	−0.22 **(24.9)	−0.27 **(16.5)	−0.25 **(23.3)	0.21 **(30.7)	0.0002 (0.03)	0.4411	41.0**
投資額									
30萬弗未滿	1.12	−0.53 **(12.3)	−0.21 **(11.7)	−0.26 *(5.3)	−0.38 **(21.4)	0.16 *(6.4)	0.003 (0.27)	0.4015	19.1**
30萬弗以上	1.00	−0.69 **(23.9)	−0.23 **(11.9)	−0.28 **(8.56)	−0.16 *(6.0)	0.23 **(21.6)	0.0002 (0.03)	0.4711	27.8**
外國人投資比									
50% 以上	1.18	−0.89 (35.5)	−0.28 **(23.6)		−0.38 (33.6)		0.04 (1.12)	0.4913	29.3**
50% 未滿	1.28	−0.62 **(13.3)	−0.17 *(5.6)		−0.18 *(4.2)		−0.16 **(11.6)	0.2746	10.5**
資產									
10億 以上	1.01	−0.73 **(23.2)	−0.23 **(11.3)	−0.24 *(5.5)	−0.17 **(7.6)	0.23 **(20.4)	N.S.	0.4298	21.6**
10億 未滿	1.10	−0.43 **(9.1)	−0.20 (3.7)	−0.30 **(11.5)	−0.43 **(20.9)	0.16 *(6.1)	0.02 (3.69)	0.3908	19.9**

註 : 〈表 6〉 참조.

〈表 8〉 産業別 技術導入件數

	導入件數	總件數	導入比率
飮食料品	5	17	29.4
纖維·衣服	4	48	8.3
纖維	4	22	18.2
衣服·皮革	0	26	0.0
紙製品	2	6	33.3
化學石油	35	72	48.6
石油精製	5	5	100.0
非金屬鑛物	5	16	31.2
第1次金屬	9	16	56.3
機械및裝備	59	179	33.0
組立金屬	5	25	20.0
機械	13	30	43.3
電氣·電子	32	95	33.7
運輸裝備	6	10	60.0
科學測定및制御	3	19	15.8
其他	2	22	9.1
合計	189	608	31.0

資料：1979年「서베이」資料에서 計算.

纖維·衣類 모두 64%에 이르고 있다(表5 참조). 國別로 보면 兩者 모두 거의 90%가 日本으로부터의 投資라는 점이 주목된다. 衣類, 皮革製品部門에 있어서의 海外投資는 日本이 勞動力 부족과 그에 따른 勞動費用의 上昇에 대처하기 위하여 韓國에 小規模로 投資하여, 輸入한 原材料와 韓國의 低賃勞動力을 이용해 生産된 製品을 母企業이 以前에 공급했던 本國 또는 第3國의 市場에 輸出하는 形態이다. 따라서 生産工程도 單純勞動인 경우가 많으며 그 한 증거로 〈表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産業의 약 90%以上은 技術導入이 없다. 또 前述한 대로 投資動機「서베이」에서도 이 점은 분명히 나타나 있다(表4 참조). 投資의 零細性도 여러가지 危險負擔의 分散이라는 점 이외에 결국 現地의 運營이 裝置産業이나 大

〈表 9〉 産業別 合作投資動機

(단위：%)

	不足資本補充	技術支援	原資材輸入및製品輸出市場確保	投資先의經驗, 施設利用	政府의特惠	合計
飮食料品	11	27	33	27	1	100
纖維·衣服	19	25	32	20	3	100
纖維	23	26	29	18	4	100
衣服·皮革	14	24	35	23	3	100
木製品	33	50	—	17	—	100
紙製品	36	32	4	16	12	100
化學石油	18	36	27	16	2	100
石油精製	33	29	38	—	—	100
非金屬鑛物	22	29	27	15	6	100
第1次金屬	12	36	28	22	2	100
機械및裝備	10	38	28	22	2	100
組立金屬	15	36	23	25	1	100
機械	13	40	21	26	0	100
電氣·電子	8	39	29	21	3	100
運輸裝備	6	42	24	27	—	100
科學測定및制御	7	32	39	18	3	100
其他	8	40	26	23	3	100
計	13	35	28	21	2	100

註：이 퍼센트는 上記 5個項目의 合作動機順位를 加重値를 주어 合算한 것을 다시 퍼센트化하여 重要度로서 표시한 것임.
資料：1979年「서베이」資料.

規模 組立工場처럼 大規模投資가 없이도 經濟的으로 효율적인 運營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있다. 또한 規模의 영세성은 現地의 여건이 변할 때(예컨대 勞賃이 급히 上昇하는 경우) 큰 비용 들이지 않고 投資地域을 바꿀 수 있게 해 준다. 玩具, 樂器, 運動具 製造등이 主宗을 이루는 其他製造業의 경우도 投資規模는 작지만 그 類型은 纖維·衣類의 경우와 유사하다. 즉, 이 부분의 輸出比重은 78%로서 상당히 높다. 이들의 投資도 日本地域으로부터가 90%로 높고 平均投資規模도 20萬弗로서 극히 영세하다. 또한 그들의 總所要原資材 중 輸入에 의존하는 비율이 54%나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문도 纖維類와 같이 韓國에서 비교적 낮은 賃金으로, 고용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輸入原材料를 加工生産하여 輸出하기 위하여 投資된 것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單純勞動利用型 直接投資도 1970年代初에서 1973~74年頃까지 활발히 들어오다가 韓國賃金水準이 계속 높은 水準으로 上昇하자 그 投資가 매우 저조하게 되었다. 즉, 〈表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6年 以後에는 단지 7件뿐으로 1972~75年 期間동안 認可된 81年(衣類, 皮革만은 51件)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投資企業의 所有形態로 보면 輸出自由地域에 投資하여 100%의 外國人投資가 된 경우(약 10%)를 제외하고는 모두 合作投資形態를 취하고 있고, 특히 그중 약 1/2은 外國投資分이 50%以下인 것이 주목된다.

또 原材料의 약 54%가 輸入에 의존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韓國에서는 거의 勞動과 一部原資材에 의존한 現地加工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볼 것은 外國投資持分이 50%以下라 할지라도 外國投資家가 技術, 그리고 輸入原材料의 調達과 製品의 輸出을 관장하고 있는 경우 現地人(즉, 韓國人)合作投資家에 비하여 월등한 主導力(bargaining power)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것은 우리가 設問紙에서 調査한 國內人이 合作投資를 하게 된 動機에서 첫째 技術支援, 둘째 原材料 및 輸出市場確保를 든 것을 보아 분명히 알 수 있다(表 9 참조). 外國의 事例에서 보면 原材料의 輸入價格과 製品의 輸出價格의 transfer pricing을 통하여 外國投資家가 利潤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合作投資의 形態는 現地政府의 合作投資勸告政策에 순응하면서 子會社運營의 現地에서의 편리를 고려한 조처인 것으로 보인다[16].

나. 電氣·電子機器産業

前述한 바와 같이 電氣·電子機器의 경우가 全體外國人投資의 25%나 차지하고 있는 가장 활발한 産業으로서 輸出比重이 큰 垂直的 投資形態의 대표적 産業이다. 1978年 基準으로 보면 輸出比重이 全販賣額의 65%나 된다.

投資規模로 보면 30萬弗 以下의 小規模投資가 전체의 60.6%이고 89%가 100萬弗 以下의 投資이다. 또한 纖維類의 경우와 같이 그 대부분인 85%가 日本으로부터의 投資이며(金額

16) 政府에서는 원칙적으로 全量輸出이거나 特殊技術産業 등 政府가 유도하는 投資種目이 아닌 單純勞動集約産業이나 保稅加工, 國內販賣目的인 경우 內國人이 經營權을 갖는 合作投資形態를 갖도록 지도하였다. 經濟企劃院, 『經濟協力의 現況과 方向』, 1980, pp.11~16 참조.

으로서는 70%), 나머지가 美國과 EC 諸國의 投資이다. 日本地域으로부터의 投資는 平均投資金額이 58萬弗로서 美·EC 地域의 企業當 投資額인 134萬弗의 1/2도 안되는 規模이고, 生産形態面에서 보면 대부분이 電子産業에 필요한 일부 部品의 組立生産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組立에 필요한 素材는 技術集約的인 경우 輸入에 의존하고, 勞動集約的인 組立過程만을 韓國에서 加工하여 國內販賣와 海外輸出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總原資材 가운데 輸入에 의존하는 정도가 66%인 것이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輸入比重이 1975年의 82%에서 최근에 점차 減少하고 있는 것은 國內部品 및 素材産業의 점진적인 發展을 표시해 준다(表 5 참조).

外國人投資의 合作比率을 보면 100% 單獨投資가 24%이며 나머지는 投資比率 50%未滿과 50%以上이 반반씩 나뉘어 있다.

國別投資比率로 보면 美國의 경우 56%가 單獨投資임에 비하여 日本은 17%만이 單獨投資를 하고 있어 美國企業이 그러한 組織形態를 더욱 선호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이 電子機器部門도 纖維類의 경우처럼 垂直的인 外國人投資로서의 여러가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 組立金屬, 科學測定機器

이들 産業은 前述한 電子機器나 衣類, 皮革 등의 경우처럼 輸出比重이 뚜렷하게 높지는 않으나 1978年 基準으로 볼 때 組立金屬製品 58%, 科學測定機器 55%로 상당히 높다(表 3 참조).

이들은 또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輸出比重이 극히 높은 勞動集約的 産業들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들 産業의 輸入比重은 組立金屬製品 60%, 科學測定機器 64%로 매우 높은 水準에 있다. 外國人의 資本參與比率도 50%以上 投資가 훨씬 많으며 投資規模로 보더라도 電子機器나 비슷한 각각 平均 70萬弗 및 30萬弗로서 영세한 規模를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投資時期를 보면 1972年 以後가 대부분이며 특히 組立金屬의 경우 약 全體投資의 30%(金額으로서는 40%)가 1976年 以後 3年間에 이루어진 投資이다(表 2 참조). 이러한 현상은 이들 産業에의 外國人投資가 勞動集約的인 部門과는 약간 다른 面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즉, 國內의 需要가 經濟의 發達로 점차 커지고 技術 및 技能의 축적도 이루어지면서 輸入部品에 의한 單純加工의 輸出指向型 投資를 중심으로 投資가 이루어지가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産業은 輸出比重이 매우 높은 衣類, 電子機器같은 勞動集約的인 工程製品과 輸出比重이 낮은 産業들과의 中間的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2. 輸出比重이 낮은 産業

가. 化學 및 石油精製

이 部門은 肥料, 石油精製 등의 石油關聯工業들로서 國內市場을 목표로 한 대규모 裝置産業으로 規模가 크고 또 1960年代 初期以來 政府가 政策的으로 추진해 온 産業의 根幹이 되기 때문에 다른 産業에 비하여 外國企業의 水平的인 投資類型을 가장 잘 볼 수 있다.

먼저 石油精製部門을 보면 우리나라 石油精

製를 담당하고 있는 精油關係 會社는 Gulf, Caltex, Shell 등 典型的인 多國籍企業이고 肥料, 化學, 醫藥, 合成樹脂 등에 있어서도 美·日系의 큰 多國籍企業들이 投資先으로 참여하고 있다.

投資額으로 보면 전체가 284百萬弗로서 會社當 平均投資額이 200萬弗에 이르고 있어 다른 어떤 産業分野보다 規模가 크다. 그러나 苛性소다, 肥料, 精油 등 몇가지 業體는 大規模投資인 반면에 日本系企業의 投資가 100萬弗 以下로 작다는 것은 흥미있는 사실이다. 投資比率로 보면 Dow Chemical을 비롯한 單獨投資가 5件이고 대부분은 50%를 前後한 合作投資의 形態를 취하고 있다.

外國의 投資企業들이 典型的인 多國籍企業이면서 合作形態의 投資에 응한 것은 韓國政府의 外國企業의 投資政策 때문이다.

이 部門에서는 全販賣額에서 차지하는 輸出比重이 아주 낮은 것은 이 産業들이 國內市場의 수요를 채우기 위한 輸入代替産業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部門은 또한 外國投資企業의 技術導入이 아주 활발하여 1978年까지 63件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外國人投資企業의 技術移轉全體 29%에 이르는 것으로 精油 및 化學工業의 産業的인 특성이 大企業의 研究·開發(R&D)費用이 크고 그에 따른 技術改良 및 革新이 많으며 또 이것이 特許 등으로 잘 보호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나. 一般機械, 運輸裝備, 1次金屬, 非金屬鑛物製品

이 産業들은 일반적으로 後進的인 經濟構造를 가지고 있는 國家들이 比較優位를 가질 수 없는 資本集約的 또는 技術集約的 部門이거나 製品의 性質上 輸出競爭力을 갖기 힘들어 輸出을 통한 國際競爭을 위하여 韓國에 投資하는 것이 별로 많지 않은 部門이다.

그러나 韓國經濟의 發展에 따라 國內市場規模가 커지고 技術의 축적이 점차 이루어지며 國內市場의 保護措置가 따르면서 이 部門의 投資도 차츰 增加하기 시작하였다(表 2 참조).

原材料의 輸入比重이 비교적 높은 것은 素材(1次金屬)나 技術集約部品(機械, 運輸裝備) 등 國內聯關企業의 未發達이 重要 理由인 것으로 보이나 1975年에 비하여 점차 낮아지는 趨勢에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表 5 참조).

이들의 輸出比重은 平均 25% 以下로 비교적 낮다. 또 平均投資規模도 약 50萬弗以上으로 비교적 높은 水準이다. 投資規模가 크고 國內産業과의 연관이 큰 自動車組立工業에서 우리는 水平投資의 典型을 볼 수 있다.

合作比率面에서 보면 國內投資家가 50% 以上을 占有하고 있는 경우가 外國人이 主導權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많아서 國內市場販賣의 중요성을 나타내 준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産業的인 특성을 綜合要約하고 韓國에 있어서의 外國人投資類型과 貿易의 行態를 정리하여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政策에 어떤 示唆를 하고 있는지를 보자.

Ⅳ. 要約 및 結論

韓國에 있어서의 外國人投資의 類型은 韓國이 가진 比較優位要素를 이용하기 위한 輸出指向型 投資와 國內市場指向型 水平投資

로서 나누어진다.

水平的 投資의 類型은 精油, 化學, 自動車, 通信機器 등의 경우에서처럼 대부분 母國에서 寡占을 形成하고 있는 大企業들의 投資로서 그들이 가진 높은 技術優位 및 製品差別(product differentiation)을 根據로 市場의 寡占을 形成한 경우이다.

이들의 韓國進出은 國內市場規模가 크지 못했던 1960年代와 1970年代 初半期에 있어서 利潤保障 등 政府의 특별한 誘因政策(incentive policy)에 힘입은 바 컸다. 다만 韓國에 있어서의 이들 投資의 한가지 差異點은 몇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單獨投資보다는 國內同業者와 合作企業의 形態로 投資한 점이다. 이것은 外國投資者의 選好가 아니고 韓國政府의 政策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韓國의 經濟가 發展하고 技術水準이 進步하면서 國內市場規模도 커지고 따라서 이와 같은 水平的 投資가 점차 더 增加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까지 韓國에 있어서 外國人投資는 주로 低廉한 勞動力을 이용한 勞動集約的 工程의 費用을 줄여서 輸出하기 위한 輸出指向型 投資가 많다.

여기서 한가지 特記할 것은 外國投資企業의 경우 石油化學이나 運輸裝備를 제외한 모든 產業分野에서 輸出比重이 總賣出額의 거의 20%以上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몇가지 예외적인 分野를 제외하고는 韓國에 있어서 대부분의 外國人投資는 輸出指向的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全般的으로 높은 輸出比重은 1960年代 以後 韓國의 對外指向的인 經濟開發政策의 적극 추진으로 政府에서 輸出產業을 적극 育成하는 시책의 영향이 컸고 특히 1965年 韓日國交正常化 以後 日本에서 점차 比較劣位에 들어가는 勞動集約的인 產業의 對韓投資增加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이유로는 製品週期理論(product cycle theory)이 제시하는 것처럼 製造技術이 표준화되고 生產費의 主要差가 勞務費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製品 生產工程中 勞動集約的인 工程(즉, 部品의 製造組立)을 勞動費用이 상대적으로 싼 地域에서 生產하여 交易하는 體制가 크게 發展해 온 產業立地的인 趨勢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韓國이나 臺灣처럼 상대적으로 使用費用이 低廉하면서도 잘 훈련되고 生產性이 높은 勞動力을 가진 地域이 그러한 投資의 主對象이 되었으며 이러한 趨勢는 이들 地域의 工產品의 輸出入을 크게 增加시키는 한 要因이 되었다.

이것이 世界的인 觀點에서의 새로운 分業體制를 형성하는 과정이고, 또 이것은 工業國家들간에 많이 增加하고 있는 同一產業內의 交易(intra-industry trade)의 한 要因을 이루어 오고 있다.

그러면 政策的인 側面에서 이와 같이 比重이 큰 輸出指向的인 外國投資가 갖는 問題點은 어떠한가 살펴보자.

첫째, 輸出指向型 投資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生產技術, 製品의 輸出「마케팅」, 原資材의 輸入源 등을 장악함으로써 外國人投資家가 經營의 主導權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 外國人投資家의 利害와 被投資國의 經濟的인 利害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國內經濟가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17].

17) 現地政府와 外國企業과의 利害차이에 관하여는 Vernon(1977), pp.139~174 및 Doz and Prahalad(1979), pp.149~157 참조.

둘째로, 輸出指向的 外國投資는 輸入代替的인 水平投資에 비하여 貿易自由化 등 經濟의 效率的 運用을 도웁지만 다른 한편 새로운 産業의 開發, 科學 및 技術의 축적 등 初期段階에 있어서의 動態的인 比較優位의 변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즉, 輸出指向的인 投資는 前述한 바와 같이 많은 原資材를 輸入에 의존하는 등 國內産業들과의 相互關聯이 國內市場指向型 投資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前·後方連繫(forward or backward linkage)를 發展시키는 데 後者에 비하여 덜 효과적인 점이 있다.

세째로, 輸出指向型 投資는 일반적으로, 특히 그중에서도 母企業이 효율성 없는 中小企業의 零細投資인 경우에 現地生産與件에 변화가 오면 이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즉, 한 예로 賃金이나 에너지 등 生産要素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경우에 그러한 與件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하는 대신 쉽게 다른 地域으로 옮길 수 있는 産業(소위 foot-loose industry)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 國內市場指向型 外國人投資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問題點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技術과 資本 兩面에서 競爭力이 우수한 外國大企業의 進出로 國內市場에서 獨占 또는 寡占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 또 國內重化學工業의 國際競爭力이 약하여 이들을 위해 國內市場을 保護함으로써 重化學工業에 進出한 外國企業이 國內外的으로 競爭이 줄게 됨으로써 效率的인 企業으로서의 發展보다는 過剩保護體制內에 安存하는 企業으로 轉落할 우려가 있다.

둘째로는, 外國人投資企業이 國內市場을 벗어나 外國에 進出하려는 의도가 母企業의 利益追求政策과 一到하지 않음으로써 沮害받을 우려가 있는데 특히 合作投資의 경우에 그러한 예를 종종 보게 된다.

外國人投資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外國人投資 誘致政策 및 貿易政策의 적절한 運用과 國內産業의 競爭力을 提高할 수 있도록 産業政策을 잘 調和, 運用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外國人의 投資는 投資家에게 주어지는 利益과 그들이 國內産業育成 및 技術發展에 이바지하는 寄與度가 均衡을 이룰 수 있도록 政策的으로 誘導해 나가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外國人投資企業現況』, 1979.

經濟企劃院, 『經濟協力의 現況과 方向』, 1980.

具本湖·朴振根, 『合作投資政策에 관한 硏究』, 韓國開發硏究院 報告書 No.7302, 1973. 5.

朴乙鏞, 「多國籍企業의 直接投資와 技術導入」, 『韓國開發硏究』, 第1卷第4號, 1979, 겨울호.

日本通商産業省, 『我ガ國企業の海外事業活動』, 1977, 1978.

小島清, 『海外直接投資論』, ダイヤモンド社, 1977.

Caves, R.E., International Corporations: "The Industrial Economics of Foreign Investment," *Economica*, 38, February 1971.

_____, "Causes of Direct Investment,"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 1974a.

_____, "Multinational Firms,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in Host-Country Markets," *Economica*, May 1974b.

Cohen, B.I., "Comparative Behavior of Foreign and Domestic Export Firms in A Developing Econom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IV, No.2, 1973.

_____, *Multinational Firms and Asian Export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5.

Doz, Y.L., and C.K. Prahalad, "How MNCs Cope with Host Government Intervention,"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 ~April 1980.

Hirsch, Seev, *Location of Industry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60.

Horst, T., "Firm and Industrial Composition of U.S. Exports and Subsidiary Sales to the Canadian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72.

Hufbauer, G.C.,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nd Direct Investment," in Peter B. Kenen(ed.),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Frontiers for Researc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Hymer, S., *The International Operation of National Firms: A Study in Direct Foreign Investment*, Cambridge: M.I.T. Press, 1976.

Jo, Sung-Hwan, *The Impact of Multinational Firms*, ILO Working Paper, 1976.

Kindleberger C.P.(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I.T. Press, 1970.

Ozawa, T., *Japan's Technological Challenge to the West, 1950~1974*, Cambridge: M.I.T. Press, 1974.

Reuber, G.L., *Private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73.

Tomlinson, J.W.C., *The Joint Venture Process in International Business*, Cambridge: M.I.T. Press, 1970.

Tsurumi, Yoshi, *The Japanese Are Coming: A Multinational Interaction of Firms and Politics*, Cambridge: Bellinger, 1976.

Vernon, Raymond,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40, May 1966.

_____, *Sovereignty at Bay: The Multinational Spread of United States Enterprises*, New York: Basic Books, 1971.

_____, *Storm over the Multinational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Vaitsos, C., *Inter-Industry Income Distribution and Transnational Enterprises*, Oxford: Clarendon Press, 1974.